

‘광주형 일자리 사업’ 물꼬 트이나

최대 사업장 금호타이어 노사 동참 선언 ‘마중물’ 기대 노사정 대타협 성과 ... 연대와 합의 가능성 보여줘

광주시가 아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지역 최대 사업장 중 하나인 금호타이어 노사가 동참을 선언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는 18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더불어 사는 광주,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협약’을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 허용대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대표회장,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이 협약에 서명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노동자의 자존감 회복, 고용안정, 회사 이미지 개선 등에 협력하고 노사는 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해마다 파업, 직장폐쇄 등 노사분쟁을 보였던 금호타이어는 노사갈등에 대해 평화적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는 이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상생 프로그램과 각종 노동정책 현장교육, 문화행사 등을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다.

윤 시장은 “반세기가 넘도록 광주와 함께 성장해온 금호타이어가 최근 경기침체와 노사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노사가 기업 발전에 뜻 모으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도 함께하기로 협약한 것은 또 다른 양보와 배려”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허 지회장과 이 사장은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 데 의미를 두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특정 기업의 평균보다 낮은 적정임금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인건비 감소로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이날 협약은 사업 추진의 열쇠인 노사정 대타협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평가되며, 지역 대기업 노사와의 협약을 통한 지역의 연대와 합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

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와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2~14일 광주시청에서 희망드림 콘서트를 열어 지역 사회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도 했다.

앞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해 1·2노조 집행부들과 잇따라 면담한 것도 노사협력 강화를 기대하게 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호타이어는 복수 노조 체제로 1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련 소속이며, 2노조는 민주노총 미가입 노조이다.

이날 면담은 노사정 공동협약과 노사합동 희망콘서트 등 금호타이어가 예년과는 다른 노사관계를 보이는 와중에 가진 면담이어서 지역사회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박삼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발표된 올해 상반기 실적악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하반기에는 노사화합을 통한 실적 향상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도 최근의 노사화합 분위기를 견인해 올해 임단협과 매각 과정에서 고용보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더 나은 일자리 창출 공동협약 18일 광주시청사 비즈니스 룸에서 열린 ‘더불어 사는 광주,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협약식’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금호타이어 이한섭 사장 등이 협약식을 끝낸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공사비 과다 산정하고 법인카드 결제 관리 허술

광주시, 건설본부 등 4곳 감사 예산 부당집행 등 무더기 적발

광주시 산하 사업소와 공단 등이 과도한 예산 낭비, 예산 부당 집행 등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는 18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환경공단, 여성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종합건설본부와 관련해 15건을 적발해 시정 12건, 주의 2건, 통보 1건 등 행정조치와 4300여만원 회수 처분을 요구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경정계 1명, 훈계 3명, 주의 5명, 기관경고 3명 등 신분상 조치와 시정 16건, 주의 5건 등 행정조치, 4억7300여만원 예산을 감액 또는 회수하도록 했다.

환경공단은 주의 3명과 함께 시정 4건, 주의 7건, 개선 3건, 통보 2건 등 행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여성재단은 시정 3건, 주의 2건, 개선 1건 등 조치를 받았다.

종합건설본부는 1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법인카드 결제계좌를 허술하게 관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732억원대 동복 도수터널 건설공사 과정에서 취수탑 기능보완을 위한 적외선 감지기, 인공 식물성 등 기계장치 감시용 CCTV를 설치하지 않고 골재 매각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또한, 상수도 원인지 부담금 부과 조례 제정을 소홀히 해 기관경고 처분도 내려졌다. 환경공단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 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8건, 7억3000여만원 규모의 입찰을 긴급공고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입찰을 해야 할 금액대 계약에서도 상당수 규정을 어겼으며 임직원 건강진단 병원을 선정하면서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회에 포함해야 하는데도 소속 직원들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성재단은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을 주고 행사 경비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거나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들에게 과도한 경비를 위 예산을 낭비했다고 시는 밝혔다. / 이종행기자 jzgolee@kwangju.co.kr

전남도, 동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고흥 양식 바다송어 수출 시동

고흥 양식 바다송어가 조만간 일본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본에서 열리는 ‘2016 동경국제수산물박람회’에 참가, 고흥 바다송어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박람회는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는 세계 최고의 수산식품 전문 박람회로, 모두 26개국·750개 무역·유통업체 종사자들이 참가했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고흥 바다송어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등 일본 수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일본 등 여러 국가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바다송어 수출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 이종행기자 jzgolee@kwangju.co.kr

탈북 태영호 공사 부부는 빨치산 가문

태병렬 인민군 대장 아들 부인 오혜선은 오백룡 일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가명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항일 빨치산 1세대이자 김일성의 전령병으로 활동한 태병렬 인민군 대장의 아들이라고 한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18일 “북한 외교관의 근무 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태영호 공사가 주영 북한대사관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것은 출신 성분이 좋기 때문”이라며 “태 공사의 아버지는 김일성 전령병으로 활동한 항일 빨치산 1세대 태병렬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태 공사의 아버지로 알려진 태병렬은 1916년생으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일성 국가장의 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1997년에 사망했다. 태 공사의 형인 태형철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보인이다.

최종호, 오일정 등과 함께 빨치산 2세대인 태 공사의 한국행은 북한 엘리트층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 핵심 엘리트층에서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태

공사가 대사관 내 당 책임자인 ‘세포비서’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의 사상교육업무까지 관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 공사의 부인인 오혜선(50)도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이자 노동당 군사부장을 지낸 오백룡(1984년 사망)의 일가로 알려졌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오혜선은 오백룡의 아들인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의 친인척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태 공사 부부는 올 여름 본국 소환을 앞두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태영호의 큰 아들은 태영호와 함께 영국에 거주하면서 현지 한 대학에서 공중보건의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덴마크에서 태어난 작은 아들은 막 고교를 졸업한 19세로 임피리얼 칼리지 대학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 공사 가족들은 신변보호를 위해 국무원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태 공사가 탈북한 북한의 최고 위급 외교관이라는 점에서 그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북한 권력층 내부와 관련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주목된다. / 연합뉴스

박대통령 다음달 4~5일 중국 방문 G20 참석

시진핑과 회담 여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는 제11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개최국 정상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갖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혁신, 활력, 포용적 세계경제 건설’로 ▲세계 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방안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포용적·혁신적 성장방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안정망 강화 방안 ▲세계교역 위축에 대응한 G20 협력 방

안 등이 주요 논의의 전망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다음달 7~8일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7일) ▲제19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7일)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8일)에 차례로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아세안+3 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공동체 건립차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은 G20 및 아세안 관련 회의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중 양국 정상과의 결단에 따라 성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지사배 카드대회

21일 F1 경주장서 열려

전남도는 오는 21일 영암 F1 경주장에서 ‘전남도지사배 2016 카드대회’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도가 주최하는 이번 카드대회는 전남도가 지난 2012년부터 모터 스포츠

저변확대와 새로운 레저문화 육성 등 레저활성화차원에서 진행해왔다.

카드대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일반전·패밀리전·레이싱모델전·선수전 등 4개 클래스로 나뉘어 열린다. F1 경주장 주변에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스피드 썸머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